



제목	The Art of Iran
발행언어	영어
발행처	Yassavoli Publications
발행일	2015.
저자	André Godard Michael Heron(번역자)
출판국가	이란
페이지수	358
ISBN 또는 ISSN	978-943066161

내용 요약

저자 앙드레 고다드(1881~1965)는 프랑스의 건축가이며 오리엔트 고고학자로서 바그다드, 카불의 도시계획에 참가했으며, 이란 국립박물관의 디자인을 담당할 것을 계기로 1936년 그곳의 초대 관장으로 취임하는 등 유적·유물의 발굴과 보존을 담당하는 한편 학문적으로도 커다란 기여한 인물이다. 그는 ‘루리스탄 청동(Les Bronzes du Luristan, 1931)’, ‘지위예의 보물(Le Trésor de Ziwiyé, 1950)’등을 저술했으며, 마드라사의 기원, 배화신전 등 이란고고학에 관한 다수의 논고를 발표했다(1936~1949).

이 책은 1965년 저자의 연구들 중 이란에 관련된 자료를 집대성한 연구로서 이란 문명에 대해 보다 시각적인 표현이 강한 예술작품을 중심으로 잘 알려지지 이란 건축의 형성과 진화, 이슬람시대까지의 조각품들, 세공품,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화폐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다. 제 1장 고대 이란에서는 이란문명의 형성 배경과 루리스탄 청동기 유물을 다루고 있다. 기원전 2000여년 경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의 청동예술품은 주로 전사와 기수들을 묘사하고 있으며, 장식과 주술적인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. 제 2장에서는 키루스부터 다리우스 3세까지 아케메네스 이란의 건축, 조각, 동전을 다루고 있으며, 제 3장과 4장에서는 셀레우코스·파르티아·사산왕조의 유적과 조각, 세공품, 직물, 동전을, 제5장에서는 이슬람 시대 이란의 다양한 모스크와 회화, 카펫, 동전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.